

평화의 깃발을 들고 아프리카에서 남미로

- 이름 : 김지혜
- 근무기구 및 부서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Trinidad and Tobago, Citizen Security and Peacebuilding Department
- 직위: Programme Assistant Citizen Security and Peacebuilding
- 지원경로: UNV 청년봉사단 9기
- 근무기간: 2020.08.11. - 현재

평화의 중요성

현재까지의 인생에 가장 큰 터닝포인트를 선택하라고 하면 나는 2018년도 KOICA를 통한 콩고민주공화국 파견을 자신 있게 말할 것이다. 대학 입학 후 월드비전, 한국해비타트, 교내 국제협력처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해 봉사활동을 하면서 개발협력 분야로 외길 인생을 걸었다. 국내 무상원조 및 유상원조 기관에서 진행하는 아카데미는 물론 NIA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섹터 중심의 강의들을 줄곧 들으면서 개발협력 분야 내 분야 전문성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던 것 같다. 그중에서도 나는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어렸을 때부터 상당했고 특히 취약국 문제를 두고 깊은 고민을 하던 차에 우연의 일치인지 KOICA 콩고민주공화국사무소 YP로 파견이 되어 실제 개발도상국의 모습을 직면하게 되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참 쓰립지만 쉽게 배울 수 없는 인생의 고귀한 가치를 가르쳐준 곳이다. 그곳은 여러 가지 상황 요소가 중첩되어 장기적인 정세 불안을 겪고 있는 취약국이었다. 생활물가 상승, 경기침체 지속, 대통령 집권 연장 시도, 대선 지연, 내전 지속, 에볼라 발병 등 국내외적 어려움이 가득했다. 짧은 기간 동안 관계부처 행정 처리의 미숙함, 공무원과 경찰의 부정부패를 발견하였고, 특히 2018년 18년 만에 치러진 대선을 지켜보면서는 전자투개표기 도입으로 인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기능 마비 등을 직접 경험하였다.

그러나 나에게 가장 큰 울림을 주었던 것은 나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련의 불안정한 상황이 아닌 사업계획서 내 누군가가 자그맣게 써놓은 마지막 멘트였다. “경제발전을 위해 원조를 하면 무엇하나. 당장 사람들은 죽어가는데... DR콩고는 평화구축이 우선이다.” 상당히 적나라한 문체로 누군가의 안타까움과 깊은 고뇌가 느껴지는 문장이었다. 그리고 나 역시 평화구축 없이는 아무리 많은 공적원조를 하여도 경제성 평가에 걸맞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에 큰 공감을 하였다. 그 후 내부적으로 관심이 가는 사업이 바뀌었다.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정 지원을 위해 UNDP와 KOICA가 손잡고 진행한 ‘커뮤니티 복원 및 평화정착사업’ 등 주로 다자협력 사업에 관심이 갔고, 한 예로, 청년들이 생계 목적으로 내전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을 지닌 사업이 콩고민주공화국에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되었다.

계속되는 씨름과 UNV 합격

그 후, 한국에 돌아와 마치지 못하였던 학부를 졸업하였고 다시 진로의 갈림길에 섰다. 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었지만, 첫 파견지가 콩고민주공화국이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깊으면서도 매서운 도전을 계속해야 함을 상기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에서 경험한 거버넌스의 취약성은 마음에 깊이 남아 관련 대학원 진학을 결정하였고, 평화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정책, 법, 거버넌스 등을 자세히 배워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지니고자 노력하였다.

대학원에 진학 후 한 학기가 지나고 나서 나는 UNV에 합격하였다는 소식을 받았다. 학부 시절 UNV 청년봉사단을 두 번 지원했었고 모두 탈락의 고배를 마셨기에 누구보다 기쁜 소식이었다. 특히, 1순위로 지원하였던 UNDP 트리니다드 토바고 Citizen Security and Peacebuilding의 Programme Assistant로 합격하였고, 더 나아가 거버넌스 분야에서 탁월하다고 할 수 있는 UNDP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감사하였다.

면접을 보면서 대학원에서 한 학기 동안 수학한 내용이 크게 도움이 되었고, 특히 연구 설계 및 데이터 추출 등 까다로운 질문이 들어왔을 때 무사히 답변할 수 있었다. 대학원 첫 학기 동안 개발학 전체를 훑으면서 WorldBank, UNDP 등에서 제공하는 기본 데이터와 내가 관심 있는 정치안보 또는 아프리카 관련 데이터를 현지 조사를 통해 생성해내는 기관을 찾으면서 알아놓은 지식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 패키지를 활용해 의미있는 분석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것까지 기관에서 요구하는 듯하였다. 또한 나중에 UNDP에 들어가고 나서 알게된 사실이지만, 본 사업 포트폴리오 내 Programme Assistant는 전부 Youth였고 기관 측에서도 Youth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기에 기본적인 영어 실력과 사업에 대한 이해도뿐 아니라 면접 분위기를 중요 요소로 생각하였고, 나의 면접이 생각보다 유쾌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점을 미루어볼 때 큰 가점으로 작용한 것 같다.

UNDP 트리니다드 토바고 원격 근무 시작

작년 8월, 코로나19 확산으로 UNDP 트리니다드 토바고 사무소에서 원격 근무를 시작하였다.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카리브해에 있는 섬나라로 베네수엘라 옆에 위치해 있다. UNDP 트리니다드 토바고 사무소는 아루바, 세이트 마틴, 쿠라카오를 겸임국으로 관할하고 있고, 조직도상 Poverty and Social Policy와 Energy, Environment and Disaster Management를 주력 사업으로 한다. 한국과 시차는 13시간이 나기 때문에 현재까지 대부분 밤 9시부터 새벽까지 주로 회의에 참여하고 있고 그 외 업무는 한국시간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다.

면접에서 보았던 Supervisor를 처음 원격으로 만나 현재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당시 진행되고 있던 사업은 Positive Deviance Project 파일럿 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계속 확장되고 있던 TRIP(Trinidad and Tobago Resilience and Inclusive Peace) 프로젝트였고, 내가 본격적

으로 투입된 컴포넌트는 Youth Peace Ambassadors Programme - YTRC(Youth Rehabilitation Centre)였다. 본 사업은 트리니다드 토바고 사법부와 협력관계에서 진행되던 사업으로 해당 국가의 특수성에 기반해 발전되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꽤 규모가 큰 두 개의 갱(Gang) 집단이 있고 인구 대비 ISIS로 들어가는 청소년 비중이 전 세계에서 상위권에 위치한 국가이다. 이러한 특수성에 기반해 본 사업 내 여러 활동을 진행하였고, 그 중 하나는 폭력 비행 청소년이 수감된 트리니다드 토바고 유일의 소년교도소(YTRC)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나의 첫 번째 업무는 UNDP가 컨설팅 기관으로 계약을 체결한 YTEPP 기관의 소년교도소 내 비행청소년 대상 직업 교육을 실시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보고서 작성 및 기관과의 피드백 내용을 팀에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해당 업무를 하면서 실제로 교도소 내 청소년뿐 아니라 교도관 및 리더십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현재 진행 중인 PVE-YES(Prevention of Violent Extremism - Youth Empowerment and Strengthening) 프로젝트 기획 시 반영할 수 있었다. 소년원 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가죽공예, 섬유 의복, 미용, 배관, 자동차기기, 전기전자 등의 직업 교육 워크샵이 진행되었고 모니터링 담당자로서 워크샵 시작 전후에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프로젝트 수혜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였다.

프로젝트 기획과 지속적 역량 개발

TRIP 사업이 2020년 12월 마무리되면서 나를 포함한 팀은 결과보고서 작성에 매진하였고 그러면서 팀 내 동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동료들과 일의 합을 맞추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팀워크를 발휘한 계기는 아마 PVE-YES(Prevention of Violent Extremism - Youth Empowerment and Strengthening) 프로젝트 제안서를 함께 작성하면서일 것이다. 흔히 UN은 경력직을 선호하고 현장에 투입되어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찾는다고 하는데, 본 제안서 작성 업무를 하면서 어떤 배경에서 그러한 이야기가 흘러나왔는지 알게 되었다. 비록 개발협력 분야에서 짧은 기간 일을 하고 경력을 계속 쌓아가고 있지만 현재까지 UNDP에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바는 한국의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수립 과정, 즉 예비/기획조사부터 시작하여 국회 예산을 통과하기까지의 과정에 비하면 유엔은 확실히 유연성을 갖추면서도 전문성에 기반하여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PVE-YES 프로젝트 기획 시 해당 국가의 특수성과 수혜자의 필요에 의해 프로젝트가 발굴되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질적 및 양적 근거가 굉장히 구체적이다. 그만큼 funding에 대한 압박감이 있는 것은 분명하며, 팀 내 동료들에게 자신이 맡고 있는 직무를 능가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본 프로젝트를 수립하면서 문헌조사, 통계 기반 연구, 논문 분석 능력,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능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역량 개발을 이루었다. 특히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우리가 사업하고자 하는 사업대상지역이 왜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핫스팟(Hotspot)인지 뒷받침하는 근거를 만드는데 심혈

을 기울였다.

또한, 본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놀랐던 것은 사업의 이해관계자 분석 시 다양한 consultation meeting을 진행하는데 그들의 목소리뿐 아니라 팀 내 동료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다는 점이였다. 특히 Youth를 대상으로 하기에 팀리더는 나를 포함한 동료들에게 창업 기반 플랫폼 구축 시 주요 활동으로 포함시킬 내용을 구성해오라고 하였고, 우리는 문헌 조사 및 아이디어 제시를 통해 트리니다드 토바고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 컴포넌트를 구축해내었다. 사업의 기획, 수행, 평가 등 일련의 프로세스가 각 단계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의해 분리되어 진행되는 일반적 모습과는 달라 흥미로운 요소기도 하였다. 현지를 잘 아는 현지 직원의 의견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본 사업의 활동이 적절하고 의미가 있는지를 나를 통해 추가적으로 점검하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제안서를 만들어내었고 결론적으로 Funding Window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동료들과 해당 업무를 진행하고 무사히 완료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알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끈기, 인내, 학습을 통해 지속적으로 나를 성장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현재까지 일을 해오면서 포용적 협력이라는 유엔에서 추구하는 거대한 가치가 나의 삶에 녹아들어난 순간임과 동시에 가장 보람찬 순간으로 기억된다.

청년과 여성을 통해 공동체에 평화를 이끌어내는 Peace Innovation Challenge

PVE-YES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내가 초기 맡은 업무는 PDM(Project Design Matrix) 작성, 성과지표 선정 및 수립, 목표치 수준 결정, 목표치 달성을 위한 지침 마련, 평가 매트릭스 작성 등이였다. 그러나 항상 어디나 풍파가 있듯이 코로나19가 현지에 급격하게 퍼지면서 사업내용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기존에는 Peace Lab을 만들어 청년과 여성이 대면으로 토론하고 부트캠프를 진행하여 평화를 공동체에 이끌어내는 사업을 구상하였으나, 현재는 Peace Innovation Challenge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청년 중심 또는 여성 중심의 단체들이 예술, 농업, 에너지, 평화 구축 훈련, 심리사회 프로그램, 스포츠 등의 주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이를 전문 훈련을 통해 발전시켜 최종 상위 5개 단체에게 해당 프로젝트를 일정 기간 내에 진행하도록 하는 일종의 토너먼트 형식으로 사업 구상을 변환하였다. 본 챌린지를 진행하면서 100개에 달하는 제안서를 받았고 팀은 미리 설정해놓은 구체적 평가 기준에 따라 현재 토론하며 상위 15개 그룹을 선별하고 있는 중이다. 비록 사업내용이 바뀌긴 하였지만, 누군가 ‘풍파는 전진하는 자의 벗’ 이라 하였듯이 코로나19 확산이 오히려 기관 내 공동체를 끈끈하게 해주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어 감사할 따름이다.

왜 평화인가?

현재 1년 3개월째 나는 공동체에 평화를 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한 교수님께서 내가 평화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 깊다고 말하니 거시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평화구축을 위해 사다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에 전문성을 쌓아야 한다고 조언해주셨다. 이 말을 듣고 나름의 내적 씨름이 있었다. 평화 이슈는 SDGs에서

평화로운 사회 구축이라는 이름으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기본 정신에 따라 성공적 달성을 위해 이행해야 할 5대 핵심원칙 중 하나로 강조되고 있다. 또한, SDGs 이행에 있어 개발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다른 목표 달성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서의 양면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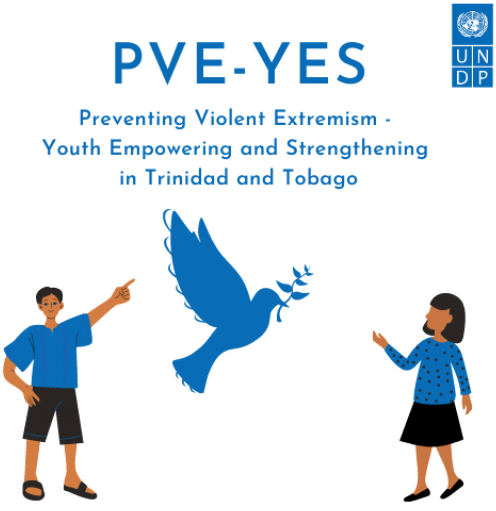
왜 평화 자체를 전문성으로 하면 안될까? 내가 현실적이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때때로 나는 다시 원리로 돌아가 결론을 이렇게 내었다. 나는 인간 자체의 긍정적 에너지에 신뢰가 깊다. 한 인간의 행동이 큰 나비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평화는 인간안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UNDP가 1994년에 발간한 인간개발보고서에서 인간안보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선택권을 안전하고 자유롭게 행사하며, 이러한 선택권이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고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된다. 덧붙여, 인간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 경제, 식량, 건강, 환경, 정치적 안보 등의 요소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평화지속화를 실현하기 위해 평화 이슈는 단독 목표로서만이 아닌 SDGs의 다른 목표들과 연계해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중심이 되는 것은 역시나 인간이라 생각한다. 선택권을 쥐고 있는 것은 인간이며 우리가 보장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택권을 기타 수단을 통해 보장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팀이 Peace Innovation Challenge를 진행하면서 핵심가치로 삼고 있는 것은 여성과 청년 단체가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프로젝트를 기획해 그들이 주도적으로 공동체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신뢰이다. 이것을 강조할 때 나는 지속적 평화가 공동체에 뿌리 깊게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치며

막상 글을 쓰다보니 나의 진로 발전과 전문성을 가지고 싶은 분야에 대한 고민을 적게 되었다. 현재까지 원격으로 일을 하고 있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든 부분이 있지만, UNDP 트리니다드 토바고 근무 경험은 내 인생에 큰 자양분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만나고 주력으로 맡고있는 프로젝트 외에도 EU와 연계하여 트리니다드 토바고 내 사법시스템에 디지털 요소를 심는 Justice 프로젝트, Anti-Corruption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조금씩 노출되고 참여하고 있다. 막연한 꿈이었던 국제기구에서 언어 실력을 계속 쌓아나가며 자연스레 몸으로 배우고 있는 것이 많겠지만, 언제나 감사한 대상은 나를 이해해주고 신경써주는 동료들과 이 기회를 만들어준 내 본국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이 국제기구에 대한 환상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비록 내가 경험한 것이 작고 소박할 수 있지만, 이 글을 읽고 국제기구 취업을 도전하여 본인을 더 넓은 세계로 몰아 보다 부드럽고 냉철한 시야를 가질 기회를 얻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 생각한다.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이 있는 분들에게 이 글이 좋은 에너지가 되기를 바란다. /끝/

< 사진 자료 >

<p>UNDP Youth 모임</p>	<p>매월 초 진행되는 전체 Staff 미팅</p>
 <p>The image shows the logo for the PVE-YES project. At the top right is the UNDP logo. Below it, the text reads "PVE-YES" in large blue letters, followed by "Preventing Violent Extremism - Youth Empowering and Strengthening in Trinidad and Tobago" in smaller blue text. The central graphic features a blue dove in flight, holding an olive branch, positioned between two stylized human figures: a boy on the left pointing towards the dove, and a girl on the right looking at it.</p>	
<p>PVE-YES 프로젝트 로고</p>	<p>Citizen Security and Peacebuilding 팀 미팅</p>